팔레비王, 乘用車 放賣

—완벽한 保安裝置의 캐딜락을 15만달러에—

『● VIP용 安全세단 放賣 ●
이 車를 탄 사람은 銃彈·爆彈·테러攻擊에 도 다치지 않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르몽드紙를 포함하여 세계의 6개신문지상에는 이런 광고가 등장했다. 放賣대상은 최근 사망한 이란의 팔레비王이 2년전 주문했던 24만5천달러의 1979년형 캐밀락이다. 그런데 王座에서 쫓겨난 그는 5만달러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인수를 거부했다. 그 하나의 이유는 銀빛의 이 회색차가 처음 亡命길에 오른 멕시코의 비포장도로를 달리기에는 車폭이 너무 넓었기 때문이다.

현재 이 車는 15만5천달러를 홋가하고 있다. 신문에 나온 광고의 내용을 보면 이 車는 防彈장치가 되어 있고 지붕에서 수류탄이 터지거나 보디밑에서 地雷가 터져도 끄떡 없다는 것이다. 이 車에는 기관총좌대에서 爆彈探知器, 15m 거리까지 최류개스를 뿌릴 수 있는 장치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갖춰 있다. 車의 뒤쪽 범퍼밑에 달린 장치는 추격하는 자동차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도로위에 30갤런이나 되는 디젤油를 흘릴수 있게 되어 있다.

운전사의 옆좌석밑에는 3발의 臘銃탄환이 위쪽을 향해 장치되어 있다. 누구든지 그 좌석에 앉은 자가 운전사를 위협하거나 불쾌하게 만들면 스위치 하나로 궁둥이가 날아가 버린다. 당초에 이 車의 제작자들은 좌석과 앉아있던 사람을 함께 車천장에 밀어붙여 으깨버리는 장치를 고안했으나 이 방법은 너무 수다스럽다고 생각하여 그만 두기로 했다.

이것저것 모두 다 틀렸을 때는 車의 트렁크속에 감춰 둔 逃走用車를 이용한다. 모터사이클 엔진이 달린 이차는 밝은 빨간 색의 미니자전거.

이 자전거는 시속 100km로 달릴 수 있다.

팔레비王은 연료의 절약도 잊지 않았다. 그는 보통의 1979년형 캐딜락보다 450kg나 더 무거운 이「電子宮殿」에 개솔린을 잡아먹는 전자방사통제장치는 일체 달지말라고 명령했다. 이 車는 보통 캐딜락이 平路에서 갤런당 14마일 走行하는데 비해 17마일 달린다. 이 車를 만든 뉴욕의 개인회사 CCS 커뮤니케이션 콘트롤社의 副社長「카마인O펠로지」는「갖고싶은 것을 모조리 가진 사람이 그것을 계속 간직하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車」라고 말하고 있다.

CCS는 5년전「벤 자밀이」창립한 이래 이런 보안용차를 4백여대나 만들었다. 전화도청방지장치를 개발하여 단단히 재미를 보기 시작한 CCS는 요즘도 10여가지의 도청경보기를 팔고있다. 값은 한대에 5백달러에서 1만2천달러에 이르고 성냥의 알보다도 작은 이 장치는 손목시계나 담배곽이나 심지어는 나선형의 공책묶는 플래스틱끈 속에도 장진할 수 있다. 이 장치에서 3m 이내를 걸어가면 빨간 다이오드에 불이 켜진다. 이 기업은 뉴욕·런던과 토론토에 공장을 갖고 있고 4번째의 공장은 쿠웨이트에 건설중이다. 이 공장은 제임스·본드도 깜짝놀랄만한 75종이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1979년의 收入은 稅金을 포함하여 1천2백만 달러였다.

CCS는 년간 6억달러의 매상고를 올리면서 급성장하는 감시장치업계에서 가장 큰 기업의

하나이다. 이 회사의 고객중에는 뒤퐁·걸프·휘아트·제네럴 후드·모우빌·르놀·필립·모리스·텍사코등 굴직굴직한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다. 지난번 깐느映画祭에 참석한 映画社중역들에게는 2백만달러이상의 도청방지장치를 팔았다. 지난 6월에는 프러드호灣에서 해저석유굴착작업을 하고 있는 한 석유회사가 경쟁자들이 電話의 対話를 도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거액의 도청방지장치를 주문했다.

미국내의 5백개이상의 경찰국은 물론 王들과 대학교수와 로크스타들도 CCS에게 방탄조끼에서 손목시계통 마이크로폰에 이르기까지 주문을 의뢰한다.

오늘날 암살과 납치와 폭발과 습격을 포함하여 전세계를 통털어 테로 行為는 한달에 250건의 율로 일어나고 있다. 1970년이래 납치된 1백명의 美国人중 반이상은 실업가들이었다. 이기간중 납치범들은 몸값으로 1억8천만달러안팎을 거둬갔다.

CCS의 카탈로그를 보면 아이언플레밍의 작품속에 나오는 물건들이다. 예컨대 007 바이오니크 가방은 방탄장치가 되어 있고 이것을 훔친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경보회로를 맞춰놓은 뒤에는 가방을 움직이면 사이렌이 울리는데 자그만치 4시간은 울린다. 이 가방을 운반하는 사람은 손가락을 2개의 링속에 넣는다. 만약 누구든지 가방을 나꿔채려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링이 튀어나와 경보가 울린다. 이가방속에는 폭탄탐지장치와 高出力의 플래쉬가 있다. 이 플래쉬는 너무나 밝아서 공격해 오는 사람의 눈에 비치면 14시간까지 눈을 멀게 할 수 있다. 그밖에도 電子位置信号장치가 들어 있다. 이런 장치를 넣은 뒤에도 서류가 들어 갈 공간이 남아 있다. 값은 완전 일습으로 1만5천달러이다.

CCS의 베스트 셀러는 거짓말探知機다. 재래식의 폴리그래프 (거짓말탐지기)와는 달리 이 장치는 맥박이 뛰는 율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의 음성의 긴장수준을 측정한다. 몸에 부착할것도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그의 眞實性을 알아낼 수 있다. 이 기계는 한대가 8천달러이나 법조인과 실업인 그리고 질투심이 많은 배우자들사이에도 팔려 나가고 있다.

이 기업은 언제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꽉 차 있다. 최근에는 6명의 기사들이 15년의 배터리壽命을 가진 原子力추적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이장치는 외과수술을 통해 사람의 몸속에 이식할수도 있다. 펠로지는 「만약에 前 이탈리아首相 알도·모로가 이런 장치를 했었다면 납치되었던 그의 거처를 쉽게 찾아 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CCS는 앞으로 나올 이 장치의 주문을 벌써부터 받고 있다.

그런데 CCS의 政策은 美国에 대해 非友好的인 국가나 시민에게는 아무것도 팔지 않는다. 이란人, 소련人, 체코人, 폴랜드人은 물론 마피아도 이 회사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

〈FORTUNE, July 28, 1980〉〈玄源福抄訳〉

眞理를 探究하여
새歷史를 創造하자